

李白詩의 大鵬形象 考

郭 利 夫*

目 次

- I. 序 論
- II. 本 論
 - 1. 莊子의 大鵬形象
 - 2. 李白의 大鵬形象
 - 3. 莊子와 李白의 差別性
- III. 結 論

I. 序 論

李白은 九萬里 蒼天을 날고싶은 욕망으로 想像의 동물을 詩의 素材로 삼았으니, 大鵬과 鳳凰, 그리고 龍이 그것이다.

中國에서는, 그 중에서도 새에 대해, 自古로 무한한 興趣를 느껴 그 표현이 古典詩歌에 많이 보이고 있다. 예컨대, 《詩經》에는 “燕”·“黃鳥”等 20餘種의 새가 60餘篇의 詩歌에서 素材로서 사용되는 것이다. 그러나 그것들은 단순히 새를 比興의 媒介手段으로만 사용했을 뿐이니, 純粹한 詠鳥詩라고 볼 수는 없다.

한편, 魏晉時期에도 詠鳥詩는 별로 유행하지 못했고, 오직 曹植의 〈白鵲謠〉와 陶淵明의 〈歸鳥詩〉等 몇 篇이 詠鳥詩의 始源임을 보여주고 있을 뿐이다.

그 後, 南朝代에 이르러 當時 山水詩의 流行에 힘입어 비로소 宇宙의 자유로운 逍遙者로서의 새에 대해 관심을 갖기 시작한 것이다.¹⁾

唐代에 이르러 詠鳥詩는 山水詩派처럼 하나의 流派를 이루지는 못했으나, 大自然, 특히 새에 대한 重視로 참신한 新局面을 이루었다. 즉, 李白은 詠鳥詩로 《詩經》과 《楚辭》중의 比興手法은

* 人文大學 中語中文學科 (Dept. of Chinese language & Literature, Cheju Univ., Cheju-do, 690-756, Korea)

1) 吳政 外 四人 《詠鳥詩選》, 中國, 廣西人民出版社, 1988, p. 1.

물론이러니와 鳥와 人間, 情과 景을 융합시켰고, 또한 자신의 감정을 이입시켜 생동감과 신선감이 있도록 필진하여 묘사했다. 아울러 그는 大鵬이나 鳳凰에 자신을 비유하여 자신의 탁월한 예술적 표현능력과 수사기법을 나타내었다.

本稿에서 論題로 삼은 大鵬은 《莊子·逍遙遊》에서 창조된 神鳥·靈鳥를 말한다. 그 作品에서 大鵬으로 발휘된 自由意識, 思想과 그 哲學이 李白의 意識構造나 思想에 어떻게 影響을 끼쳤는가를 살펴봄에 있어, 詩賦라는 藝術形式에 表現된 大鵬의 形象을 통해 考察해보고자 한다.

II. 本 論

1. 莊子の 大鵬形象

大鵬은 李白의 토템(Totem)임과 同時에, 그 自由精神의 象徴으로, 時空과 物我를 超越하여 天地萬物에서 逍遙하는 莊子の 自由思想을 自己化시킨 것이다.²⁾

李白의 詩에는 自身을 비유한 大鵬의 이미지가 자주 등장한다.

〈天台曉望〉

天台山 옆엔 四明산 있어 그 위의
 華頂峰은 南方百越의 땅에 높이 솟았네,
 赤城山의 노을을 門標로 삼고
 華頂峰 위 높은 건물엔 滄州月光이 빛난다.
 높이 올라 멀리 바라보면
 바로 아래 大海를 볼 수 있어
 드리운 구름 속엔 大鵬의 날개 보여
 巨波에 巨大한 모습 보였다 없어지네.
 大風이 불어 물결 용솟음쳐
 불가사이한 변화 어찌나 빠른지
 기묘한 사실은 아득해 볼 수 없어
 老莊의 道에 호기심 그치지 않네.
 仙境의 나무에 올라 붉은 열매 따먹고
 仙藥을 복용하고 金骨을 단련해
 몸에 깃털 돋혀 날고 싶어
 仙境에 누워 千年동안 살고 싶다.

天台隣四明
 華頂高百越
 門標赤城霞
 樓樓滄島月
 憑高遠登覽
 直下見溟渤
 雲垂大鵬翻
 波動巨鰲沒
 風潮爭洶湧
 神怪何翕忽
 觀奇跡無倪
 好道心不歇
 攀條摘朱實
 服藥鍊金骨
 安得生羽毛
 千春臥蓬闕

天台山 위의 華頂峰, 四明山과 赤城山 주위를 서술해 바다 위의 仙境인 滄洲(滄島)의 月光을 돋보이게 했다. 대낮엔 太陽이 온 天下를 밝게 비춰주니 皇帝의 德政이고 深夜의 月光을 詩人 자신이 陰德을 내보여 皇帝를 輔弼해 晝夜로 萬百姓이 즐거운 삶을 營爲하기를 기원했다. 그러

2) 葛景春 《李白思想藝術探驛》，中州古籍出版社，1991，p. 4.

나 現實世界는 歎息했기에 仙人의 世界를 동경하게 되었다. “溟渤”은 大海인데, 莊子의 “溟”은 老子의 “玄”과 같다. “雲垂大鵬翻”은 《莊子·逍遙遊》의 “怒而飛，其翼若垂天之雲”의 換骨奪胎라고 하겠다. 大鵬이 불가사이한 變化를 일으킨다고 하는 그 奇怪한 事實으로써 自身의 抱負를 비유했고, 또한 老莊思想을 體得해 항상 夢에 지냈으면 했다. 그리하여 李白은 仙境, 즉 仙人의 生活를 憧憬해 仙境 蓬萊宮에서 영원히 살고 싶은 뜻을 仙境의 理想世界에서 自由自在로 飛翔하는 大鵬의 이미지로 形象化하였다.

〈上李翁〉

돌개바람 일으켜 봉새가 날때면
단숨에 구만리를 곧추 날아 오르오.
바람 잦을 때 내려온다 해도
날개로 바닷물을 뒤길 수 있다오.
.....

大鵬一日東風起
搏搖直上九萬里
假令風歇時下來
猶能簸却滄浪水
.....

여기서의 大鵬의 “搏搖直上九萬里” 하는 형상은 원래 “水擊三千里，抃扶搖而上者九萬里”，“絕雲氣，負青天”한 形象으로 莊子³⁾에 의해 創造되었던 것이다.

북쪽 바다에 물고기 있어 이름을 鯢이라 하는데, 크기는 몇 천리가 되는지 모른다. 변하여 새가 되니 그 이름을 鵬이라고 한다. 鵬의 등 넓이도 몇 천리나 되는지 모른다. 성을 내어 날면 그 날개는 하늘의 구름을 드리운 듯 하다. 이 새가 바다를 날면 장차 남쪽 바다로 날아가려고 하는 것인데, 南쪽 바다란 天池이다. 《齊海記》는 기이한 이야기를 기록한 것인데, 그 책에서 말하기를 鵬이 한번 남방으로 날 때 물결치는 수면이 3천리이고 올라가는 높이는 9만리가 되며 6개월 간을 날아가서야 쉰다고 하였다. 공중에 떠 있는 이 새는 봄철의 흰 안개와 먼지구름의 움직임과 서로 술을 쉬고 있는 생물들을 내려다 본다. 하늘의 푸른 빛이 참된 빛같은지, 혹은 끝이 없는 거리의 결과인지 의아하게 생각하고 땅위에 보이는 것도 똑같이 보았다. 어느 정도 깊이가 없이는 물 위에 배를 띄울 수 없다. 마당의 조그마한 웅덩이에 물 한 잔을 부어 놓으면 거자세는 뜬다. 그러나 잔을 띄우려면 가라앉으니 그것은 물과 잔의 균형이 잡히지 않은 까닭이다. 바람의 쌓임 역시 두텁지가 아니하면 큰 날개를 짊어짐에 힘이 없게 된다. 그러므로 9만리는 되어야 비로소 바람의 등을 타고 푸른 하늘을 등에 지고 아무 것도 걸리적거릴 것이 없는 뒤에라야 남으로 날아가는 것(圖南)이다.

北冥有魚其名為鯢，鯢之大不知其幾千里也。化而為鳥其名為鵬。鵬之背不知其幾千里也。怒而飛其翼若垂天之雲，是鳥也海運則將徙於南冥，南冥者天池也。齊諧者志怪者也。諧之言曰鵬之徙於南冥也，水擊三千里，搏扶搖而上者九萬里。去以六月息者也。野馬也，塵埃也，生物之以息相吹也。天之蒼蒼其正色邪，其遠而無所至極邪，其視下也，亦若是則已矣。且夫水之積也，不厚則負大舟也，無力覆杯水於坳堂之上則芥爲之舟，置杯焉則膠水淺而舟大也。風之積也，不厚則其負大翼也，無力。故九萬里則風斯在下矣而後，乃今培風背負 青天而莫之夭閼者而後，乃今將圖南。”

3) 莊周(BC 369~BC 286) 戰國時期 宋國蒙(지금 河南 商丘)人으로서 思想家인데 世稱 莊子라고 한다. 著書로는 《莊子》가 있는데 《南華經》이라고도 한다. 唐代 玄宗은 그를 尊崇하여 南華真人이란 別號를 追贈했다.

4) 《莊子·逍遙遊》

莊子は 思想家로서 哲學 理論에 大鵬의 形象을 인용한 것이지만 荀子나 韓非처럼 엄정한 논리나 歷史的 事例를 들어 자신의 哲學觀念을 論證한 것이 아니라, “虛言의 曠說, 荒唐한 言事, 끝도 없는 말”로 寓言을 만들어 論據를 삼았기 때문에 그의 散文은 難解하고 文學性이 아주 강한 특징이 있다. 그리하여 中國文學은 그로 말미암아 浪漫主義的 情趣를 풍부히 할 수 있게 되었고, 또 많은 시인들의 작품 속에 수많은 題材를 제공하였는데, 그 中 大鵬의 이미지가 가장 대표적이라고 하겠다.

2. 李白의 大鵬形象

李白은 25歲 때 出蜀하여 大鵬의 雄圖를 펴고자 하였는데, 이러한 漫遊를 통하여 광범위한 사람들과 交遊하는 동안, 자연히 그의 名聲이 各계각층에 알려져 政治的 포부를 실현시킬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되기도 하였다.

當時, 李白은 求仙訪道를 통해서 道教徒들과 밀접한 관계를 맺었는데, 湖北의 江陵에서 때마침 道教界의 最高 指導者 司馬承禎을 만나 볼 수 있었다. 司馬承禎은 본래 浙江의 天台山上에 本據地를 두었지만 玄宗이 泰山에서 封祠지내는 大行事に 參席하고 나서 衡山에서 休息을 취하고자 그 地域에 와 있었던 것이다. 李白은 道教徒들과의 交際가 奏效하여 司馬承禎을 面談할 好機가 있었다. 그는 李白을 보고 “仙風道骨”이 있다고 말했으니 容貌가 凡人과 유다른 점이 있어서 神仙이나 道士의 風格을 지녔다는 의미이다. 李白은 道教 教壇의 最高 實力者로부터 칭찬받은 바에 鼓舞되어 自身을 大鵬으로 司馬承禎을 希有鳥에 비유하여 두 神鳥가 서로 그 가치를 認定하고 超越의 世界를 逍遙한다는 내용의 《大鵬遇希有鳥賦》(後에 《大鵬賦》로 改稱)를 짓게 된 것이다.

《莊子》의 〈逍遙遊〉는 그의 獨創的인 精神世界를 披瀝한 篇章으로서, “遊”라고 하는 哲學範疇에다 美學思想을 가미시킴으로써 文學적으로도 상당한 의미를 갖는 文章이라고 하겠다.

“遊”字는, 當時 遊說之風을 主導했던 先秦諸子들 가운데에 그것을 談論한 類派가 적지 않았음에도, 莊子 美學思想을 특징짓는 術語가 될 수 있었다.

劉笑敢의 《莊子哲學及其演變》에 의하면 先秦諸子の 典籍 중에 나타난 “遊”字는 《論語》에 5회, 《孟子》에 8회, 《墨子》에 1회, 《荀子》에 4회, 《周易》에 2회, 《韓非子》에 39회, 그리고 《呂氏春秋》에 4회가 보이는 반면, 《莊子》에는 무려 96회나 사용되었다.⁵⁾

더욱이 莊子는 “遊”와 “逍遙”를 결합시켜 “逍遙遊”라 하여 광활한 宇宙를 넘나드는 超越的 世界를 謳歌하는 데에 大鵬을 사용하였던 것이다.

한편, 先秦諸子の 典籍 가운데 “逍遙”는 오직 《莊子》에 6회 사용된 것을 제외하고는 全無하다.

그런데, 李白은 自身の 詩句에서 “遊”를 140회나 사용하였고, 반면 “逍遙”라는 術語의 使用은

5) 《莊子·天下》: “莊周聞其風而悅之, 以謬悠之說, 荒唐之言, 無端涯之辭”

6) 張利群 《莊子美學》, 廣西師範大學出版社, 1992, p.90 再引用.

1회에 지나지 않았는데, 그러나 그의 超越의인 詩世界는 莊子의 “逍遙遊”의 世界와 比肩할 만하다고 하겠다.

〈尋雍尊師隱居〉

하늘에 닿은 듯 깎아지른 푸른 산봉우리들
이리저리 逍遙타가 나이를 잊었다.
구름 헤쳐 옛길 찾다가
나무에 기대어 흐르는 샘 소리 듣노라.
꽃피어 따뜻한 봄날 푸른 소는 누웠고
드높은 술엔 白鶴이 즐고 있다.
한없는 이야기에, 江엔 저녁 빛 깃들어
찬 안개 속을 홀로이 내려오네.

群峭碧摩天
逍遙不記年
撥雲尋古道
依樹聽流泉
花暖青牛臥
松高白鶴眠
語來江色暮
獨自下寒煙

이 詩는 그의 〈訪戴天山道士不遇〉詩와 흡사한 분위기를 자아내고 있다.

雍尊師에 대해 久保天隨는 雍尊이라는 僧侶라고 했지만, ‘雍’은 姓氏이고 “尊師”는 德이 높은 僧侶에 대한 존칭인 듯하다.”

李白은 雍氏와는 面識이 있는 사이인데, 그를 방문한 뒤, 談論한 바를 詩로써 표현한 것이라고 하겠다.

그런데, 여기서 “逍遙”는 莊子, 青牛 즉 黑牛는 老子, 그리고 “白鶴”으로 千年의 歲月을 상징하였으니, 모두 神仙의 世界를 의미한다. 즉 “青牛”는 老子가 函谷關을 지날 때 탔던 소인데, 李白이 別天地에서 “逍遙”의 莊子와 老莊思想의 談論에 시간 가는 줄도 모르다가 어두어진 다음에야 寒氣를 느끼며 人間世界로 돌아온다고 하는 자유로운 想像의 世界가 펼쳐지고 있다.

따라서 이 詩에는 李白의 超越性, 自然性 등이 여실히 표현되고 仙界를 逍遙하면서도 어쩔 수 없는 人間俗世의 一員임을 自覺하는 詩人의 現實的 內心이 잘 표현되었다.

〈贈宣城趙太守悅〉

… … …
溟海가 고요해 요동치지 않을 땐
어찌 鵬이나 鯤이 힘을 쓸 수 있으리?
바라는 바는 暗黑의 사회에서도 맑고
재능을 맘껏 펼 터전을 마련하시오.

… … …
溟海不振蕩
何由縱鵬鯤
所期要津曰
個儻假騰翥

長安에서 放逐된 李白은 莊子의 “溟海”와 “鵬鯤”으로 集約된 形而上의 차원으로 現實社會의 暗黑政治의 內面을 暴露하며 匡正시키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이런 점에서 李白이 莊子의 哲學世界와 판이하게 다른 것이다.

7) 大島實之助, 《李太白詩歌全解》, 東京, 早大出版部, 1980. p.1417.

〈上崔相百憂章〉

옛 共公氏가 크게 성내면
하늘 받치는 기둥도 꺾어졌네.
鯤이나 고래가 물을 내뿜으면
큰 물결 일어 번개치듯 하네.

共公赫怒
天維中摧
鯤鯨噴瀟
揚濤起雷

李白은 雄志를 품고, 永王 璘의 軍陣에 가담했으나 이내 반란군으로 몰려 江西 潯陽의 감옥에 수감되는 처량한 신세가 되었다. 사형에 처하게 된 절박한 心情으로 宰相 崔渙에게 자신의 결백을 주장하며 赦免을 청하고도 있다. 이와 유사한 내용을 다룬 詩篇으로는 〈獄中相崔相渙〉도 있다.

李白은 一時에 天地로 轉變하는 大異夢을 “鯤鯨”으로 표현하고 있다.

〈贈從孫義興宰銘〉

天子는 才能있는 재상을 원해
자네 같은 인물 발탁했네.
그대의 밝은 가을 달빛 같아
외로이 밤 하늘에 姑蘇臺를 비추네.
붓을 들면 佳作의 詩文 짓고
劍舞의 민첩함은 風雷 이는 듯
자벌레가 등을 움츠리듯한 자네
大鵬이 날 듯 大臣되어 功業 이루리.

天子思茂宰
天枝得英才
朗然清秋月
獨山映吳臺
落筆生綺繡
操刀振風雷
蟻屈雖百里
鵬翥望三臺

時運이 맞지 않아 義興縣의 縣令이라는 小邑의 長을 지내고 있기는 하지만, 언젠가는 大臣되어 功業을 이룰 꿈을 갖고 있는 從孫을 격려하였는데, “蟻屈”과 “鵬翥”으로 對比시킨 李白의 裁치는 일품이라고 하겠다.

그럼 李白에 의해 再創造된 大鵬 形象의 구체적인 모습을 보자.

〈大鵬賦〉

내 예전 江陵에 있을 적에 天台의 司馬承禎⁸⁾를 만났는데, 나를 보고 이르기를 仙風道骨이 있어 더불어 八極의 밖을 노닐 만하다고 하였으니, 이에 〈大鵬希有鳥賦〉⁹⁾를 지어 스스로 자랑거리로 삼았었다. 그런데 이 賦가 이미 세상에 전해져 왕왕 사람들 사이에서 볼 수가 있었는데, 그 젊었을 때의 어실픈 창작이 廣達한 뜻을 다하기에는 미흡했음을 애석하게 여기고는 中年의 나이

8) 《大唐新語·隱逸》：“司馬承禎，字子微，隱于天台山，自號白雲子，有服餌之術，則天·中宗朝·頻微不起。睿宗雅尚道教，稍加尊異承禎方赴召。”

“天枝”는 唐 宗室을 나타내는데 國運이 沒落하는 과정에 《淮南子·天文》을 引用하여 時局이 어수선하여 不安한 狀況을 나타냈다.

9) 《神異經》：“崑崙山有大鳥，名曰希有·南向張左翼覆東王公，右翼覆西王母，背上小處無羽，一萬九千里。西王母歲登翼上會東王公也。其《鳥銘》曰：有鳥希有，綠赤煌煌，不鳴不食，東覆東王公，西覆西王母。王母欲東，登之自通。陰陽相須，唯會益工。”

에 들어 그것을 버렸던 것이다. 그러나 《晉書》를 읽다가 阮宣子の <大鵬贊>¹⁰⁾을 보았는데, 미친 한 내가 보기에도 粗惡해 보였다. 그리하여 마침내 기억한 바를 다시 적으니 舊本과 다른 부분이 많았다. 지금 다시 手抄文集에 넣지만, 어찌 감히 작가들에게 전하랴? 그저 魏代의 子弟들에게나 보일 수 있을 뿐이다. 그 내용은 이러하다.

余昔于江陵，見天台司馬子微，謂余有仙風道骨，可與神遊八極之表，因著<大鵬希有鳥賦>以自廣。此賦已傳于世，往往人間見之，悔其少作，未窮宏遠之旨，中年棄之。及讀《晉書》，親阮宣子<大鵬贊>，鄙心陋之。遂更記憶，多將舊本不同。今復在手集，豈敢傳諸作者？庶可示之子弟而已。其辭曰：

南華老仙께서 漆園¹¹⁾에서 天棧를 發하셨나니, 그리하여 고고하고 빼어난 高談을 토하시고, 넓고도 자유로운 奇言을 열으사 《齊諧》에서 지극히도 기괴한 이야기를 뽑아 내셨으니, 북쪽 바다에 어떤 물고기에 관한 이야기였다. 나는 그 크기가 몇천리나 되는 지는 알지 못하지만 그 이름은 鯤이라고 한다. 변하여 大鵬이 되는데 아직 다 형체를 갖추기 전에 등지느러미와 수염을 海島에다 벗어두고 九重 天門에서 날개를 펼친다. 바다가 끝나는 곳의 浬流에 몸을 씻고 태양이 떠오르는 扶桑에서 몸을 말리는데, 宇宙에 盤勢를 떨치고 毘命을 능멸하는도다. 한번 두드리고 한번 춤추매 안개연기 자욱하고 모래바람 일어 어두운데, 五岳이 이에 뒤흔들리고, 百川이 이에 무너져 치달린다. 그대 두터운 땅에 발을 딛고 높이높은 하늘의 장막을 건너니, 겹겹의 하늘을 끊임없이 잇고 깊디깊은 바다를 뚫고서, 삼천리를 치고 올라 우뚝 서고는 九萬里를 향해 급히 날아가는도다. 등은 태산처럼 높고도 험하고 날개는 긴 구름처럼 중횡으로 펼쳐지며, 좌로 돌고 우로 돌아 문득 어둠다간 문득 밝아지나니, 끝없이 넓고 넓은 하늘을 기세종계 날아올라 높고도 험한 閭閻¹²⁾에 이른다. 혼돈의 천지를 뒤집어 엮고 날개짓에 천둥이 이나니, 北斗가 뒤집어져 하늘이 움직이고 山이 흔들려 바다가 기울여진다. 노하니 감히 건드릴 것이 없고 그 웅대함에 감히 견줄 것이 없나니, 진실로 그 勢를 상상할 수 있으며, 그 형상이 눈 앞에 어른거리는 듯 하도다.

南華老仙，發天機于漆園。吐崢嶸之高論，開浩蕩之奇言。微之怪于《齊諧》，談北溟之有魚。吾不知其幾千里，其名曰鯨。化成大鵬，質凝胚渾，脫髻鬣於海島，張羽於天門。刷渤澥之春流，晞扶桑之朝暾。輝赫乎宇宙，憑陵乎昆侖。一鼓一舞，烟蒙沙昏。五岳爲之震蕩，百川爲之崩奔。爾乃蹶厚地，揭太清，亘層霄，突重溟。激三千以崛起，向九萬而迅征。背巖太山之崔嵬，翼舉長雲之縱橫。左迴右旋，倏陰忽明。歷汗漫以夭矯，班閭閻之崢嶸。簸鴻蒙，扇雷霆。斗轉而天動，山搖而海傾。怒無所搏，雄無所爭，固可想像其勢，彷彿其形。

저 발엔 무지개 매고, 눈은 日月처럼 빛나는데, 그 모습 아득히 하늘에 드리우다간 민첩히 몸을 움직이어나니, 氣를 뿜어내면 우주에 구름이 생기고 깃을 털면 천리에 눈이 날린다. 저 북쪽 끝을 멀리 뒤로 하고 남쪽 끝에 다다를 際, 커다란 것 자유로이 좌우로 떨다간 치달려 회오리바

10) 阮宣子：晉代의 사람으로 이름은 修, 宣子는 字. <大鵬贊>을 지었다.

<大鵬贊>：“蒼蒼大鵬，誕自北溟。假精靈麟，神化以生。如雲之翼，如山之形。海運水擊，扶搖上征。森然層舉，背負太清。志存天地，不屑雷霆。鸞鳩仰笑，尺鶴所輕。超然高逝，莫知其情。”

11) 王琦《李太白全集》〈年譜〉：“天寶元年二月，號莊子爲南華真人，文子爲通玄真人，列子爲沖虛真人，庚桑子爲洞虛真人。” 즉, 南華老仙은 莊子.

莊子는 일찍이 漆園吏를 한 적이 있다.

12) 신화전설 중의 첫번째 天門.

람 일으키며 길게 나아가니, 燭龍¹³⁾인 듯 빛을 내어 만물을 비추고, 채찍질하듯 번개 내려 길을 여는데, 三山¹⁴⁾이 조그만 흙더미인 듯, 五湖¹⁵⁾가 조그만 술잔인 듯, 움직이자 神靈이 응하고, 그 行함에 道가 따르나니, 任公¹⁶⁾이 그를 보곤 낚시를 그만두고, 有窮¹⁷⁾은 감히 활을 당기지 못하니, 낚시대를 던지고 화살을 버리고 우러러 길게 탄식치 않은 이가 없었다. 그대 그 웅장한 모습은 은하수와 같이 끝없이 트였으니, 위로는 푸르디 푸른 하늘에 닿고, 아래로는 넓디넓은 大地를 덮었다. 그러자 盤古¹⁸⁾가 하늘을 열고 곧바로 쳐다보고 羲和¹⁹⁾는 해에 기대어 탄식을 하는데, 八荒 사이에 繁盛하고 四海의 절반을 가리웠더라. 해를 가로질러 대낮을 가려 어둡게 하니, 마치 태초의 혼돈이 아직 정리지 않은 듯, 홀연 날아올라 뒤집어 회전하니 노을이 없어지고 안개가 흩어졌다.

若乃足紫虹霓，目耀日月，連軒沓拖，揮霍翕忽，噴氣則六合生雲，灑毛則千里飛雪。邈彼北荒，將窮南圖，運逸翰以傍擊，鼓奔馳而長驅。燭龍銜光以照物，列缺施鞭而啓途。塊視三山，杯觀五湖。其動也神應，其行也道俱。任公見之而罷釣，有窮不敢以彎弧。莫不投竿失鏃，仰之長吁，爾其雄姿壯觀，塊軋河漢，上摩蒼蒼，下覆漫漫。盤古開天而直視，羲和倚日以旁嘆。繽紛乎八荒之間，掩映乎四海之半。橫大明而掩晝，若混茫之未判。忽騰覆以迴轉，則灑廓而霧散。

그런 뒤 6개월 만에 한번 쉬는데, 바닷가에 이르러 갑자기 태양을 가리며 옆으로 날다가 하늘 높이 거슬러 오르곤 아래로 곧두박질 쳐 드넓은 들판에 몸을 쉬다가 광활한 연못에 들어가나니, 맹렬한 기세가 내쏘는 바요, 온갖 바람이 불어대는 바다, 大海와 大河는 들끓어 넘치고, 바위와 산봉우리 분분히 스러진다. 이에 天吳²⁰⁾는 두려워 벌벌 떨고 海若²¹⁾은 놀라 안절부절 못하고, 巨鯢²²⁾는 머리에 산을 쓴 채 달아나고 큰 고래 바다로 뛰어올랐다간 치달려 내려가는데, <巨鯢는> 겁대기 속에 대가리 감추고 (큰 고래)는 불수염을 늘어뜨리고 감히 훑쳐보지도 못하더라. 나 또한 그 신괴함이 이와같은 줄을 헤아릴 수 없나니, 모두 바로 造化공이 하신 바라. 어찌 金빛 저고리에 국화무늬 수놓은 치마를 두른 저 蓬萊의 黃鵠²³⁾에다 건줄 것이라? 또 오색 비단 같은 몸과 수놓은 듯한 무늬를 가진 蒼梧²⁴⁾산의 玄鳳도 오히려 부끄러움을 느끼나니, 이미 靈仙

13) 燭龍: 光焰을 토하여 만물을 비추는 神話 속의 神龍.

《山海經》: “西北海之外，赤水之北，有章尾山，有神，人面蛇身而赤，直目正乘，其暝乃晦，其視乃明，是爲一龍。”

14) 三山: 蓬萊·方丈，瀛洲의 三神山.

15) 張勃《吳君》: “五湖者，太湖之別名，以其周行五百餘里，故以五湖爲名.”

16) 《莊子·外物》: “任公子爲大鈞巨緇，…蹲乎會稽，投竿東海，且且而釣，期年不得魚，已而大魚食之.”

17) 有窮: 활 잘 쏘는 后羿

18) 《太平御覽》卷二: “天地渾沌如鷄子，盤古生其中·萬八千歲，天地開闢，陽清爲天，陰濁爲地，盤古在其中，一日九變，神于天，聖于地，天日高一丈，地日厚一丈，盤古日長一丈，如此萬八千歲，天數極高，地數極深，盤古極長，后乃有三皇.”

19) 《廣雅》: “日御謂之羲和.”

20) 《山海經》: “朝陽之谷神曰天吳，是爲水伯.”

21) 《初學記》: “海若曰海神.”

22) 《文選》: “左思《吳都賦》: “巨鯢，…首冠靈山.”

呂向注: “巨鯢 大龜也，靈山海中蓬萊山而大鯢以首戴之.”

23) 《西京雜記》卷一: “始元元年，黃鵠不太液池。上爲歌曰: “黃鵠飛兮下建章，羽肅肅兮行踴踴，金爲衣兮菊爲裳。啾啾荷荷，出入秉霞，自願菲薄，愧爾嘉祥.”

《三輔黃圖》卷六: “太液池，在長安故城西。…《漢書》曰: “建章宮，北治大池，名曰太液池，中起三山，以象瀛洲蓬萊方丈.”

24) 《一統志》: “淮安府海州朐山東海中有大州謂之郁州，一名蒼梧山，或雲昔從，蒼梧飛來.”

에게 부림을 당하고, 池隍에서 길들여진지 오래된 것들이라. 精衛²⁵⁾가 부지런히 나무를 물고, 鷓鴣²⁶⁾는 술잔을 대하며 슬퍼했으며, 天鷄²⁷⁾는 蟠桃²⁸⁾에서 새벽을 알리고 狡鳥²⁹⁾는 태양 속에서 점점 밝아지건만, 모두들 曠蕩하지 못하여 마음대로 떠나지 아니하니, 무엇에 의지하여 항상됨을 지키라? 그러므로 저 大鵬이 逍遙함에는 미치지 못하니, 감히 大鵬에 견줄 만한 것이 없도다. 크다고 자랑하지 아니하고, 광포하고 사납지 아니하며 매번 時勢를 따라 나아가고 몸을 감추며, 自然의 깊은 뿌리에 참여하여 壽命을 누리고 元氣를 마셔 腸을 채우며, 陽谷³⁰⁾에서 노닐며 晝夜하다가 炎州³¹⁾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는도다.

然後六月一息，至于海涘。欸騎景以橫翫，逆高天而下垂。憩乎浹漭之野，入乎汪洋之池。猛勢所射，餘風所吹。溟漲沸渭，巖巒紛披。天吳爲之怵慄，海若爲之躑躅。巨鯨冠山而却走，長鯨騰海而下馳。縮殼挫鬣，莫之敢窺。吾亦不測其神怪之若此，蓋乃造化之所爲。豈比夫蓬萊之黃鵠，誇金衣與菊裳？恥蒼梧之玄鳳，耀綏質與綿章。既服御于靈仙，久馴擾于池隍。精衛殷勤于銜木，鷓鴣悲愁乎薦觴。天鷄警曉于蟠桃，跛鳥晰耀于太陽。不曠蕩而縱適，何拘攣而守常？未若茲鵬之逍遙，無厭類乎比方。不矜大而暴猛，每順時而行藏。參玄根以比壽，飲元氣以充腸。戲陽谷而徘徊，憑炎洲而抑揚。

잠시후, 希有鳥가 보고서 말하기를, 위대하도다 鵬이여! 이 즐거움이여! 나의 오른 쪽 날개는 西極을 가리우고 왼쪽 날개는 東荒을 가리며, 땅의 脈을 밝고 天綱³²⁾을 휘돌며, 우주의 무한 공간을 등지로 삼고, 虛無를 行動의 무대로 삼노라. 내 그대와 노닐기를 바라나니 그대 나와 함께 나세나. 이리하여 大鵬이 허락하고 欣然히 서로 따르니, 이 두 새가 텅비고 아득한 우주의 끝으로 이미 올랐더라. 그러나 작디작은 종달새의 무리들은 울타리에 앉아 이들을 보고는 공연히 웃기만 하더라.

俄而希有鳥見謂之曰：偉哉鵬乎，此之樂也。吾右翼掩乎西極，左翼蔽乎東荒。跨躡地絡，周旋天綱。以恍惚爲巢，以虛無爲場。我呼爾遊，爾同我翔。于是乎大鵬許之，欣然相隨。此二禽已登于寥廓，而斥鴳之輩，空見笑于藩籬。

이렇듯 李白에 의해 창조된 大鵬의 形象은 “등지느러미와 수영을 海島에다 벗어두고 九重 天門에서 날개를 펼친다. 바다가 끝나는 곳의 봄 海流에 몸을 씻고 태양이 떠오르는 扶桑에서 몸을 말리는데, 宇宙에 聲勢를 떨치고 昆侖을 능멸하는도다. 한번 두드리고 한번 춤추매 안개연기를

- 25) 精衛: 새 이름. 항상 나무를 물고 바다를 메꿈.
《山海經》: “是炎帝之少女, 名曰女娃, 遊於東海, 溺而不返, 化爲精衛, 常銜西山之木石, 以煙於東海.”
- 26) 《莊子·至樂》: “昔者海鳥(鷓鴣)止于魯郊, 魯侯御而觴之于廟, 奏《九韶》以爲樂, 具太牢以爲膳. 鳥乃眩視悲之, 不敢食一爵, 不敢食一杯, 三日而死.”
- 27) 《初學記》卷三十: “桃都山有大樹曰桃都, 枝相去三千里. 上有天鷄, 日出照木, 千鷄即鳴, 天下鷄皆鳴.”
- 28) 蟠桃: 三千年만에 한번 열매가 열리는 장수의 仙桃.
《十洲記》: “東海有山, 名度素山, 有大桃樹, 屈盤數千里, 曰蟠桃.”
- 29) 《淮南子·精神》: “日中有狡鳥.” 高誘注: “狡猶蹲也, 謂三足鳥.”
- 30) 《隋書》: “東日陽谷, 日之所出.”
- 31) 《十洲記》: “炎洲在南海中, 地方二千里, 去北岸九萬里, 多仙人人家.”
- 32) 王琦, 《李太白全集》, 北京, 中華書局, 1977. p. 10. “天地綱維, 謂南北二極不同之處.”

자욱하고 모래바람 일어 어두운데, 五岳이 이에 뒤흔들리고, 百川이 이에 무너져 치달리며”, 두터운 땅에 발을 딛고 높디높은 하늘의 장막을 건너니, 겹겹의 하늘을 끊임없이 잇고 깊디깊은 바다를 뚫고서, 삼천리를 치고 올라 우뚝 서고는 九萬里를 향해 급히 날아가” 宇宙를 飛翔할 뿐만 아니라 “혼돈의 천지를 뒤집어 엮고 날개질에 천둥이 이니니, 北斗가 뒤집어져 하늘이 움직이고 山이 흔들려 바다가 기울어지는” 거대한 존재인 것이다. 또 “발엔 무지개 매고, 눈은 日月처럼 빛나는” 그 神采에 있어서는 “氣를 뿜어내면 우주에 구름이 생기고 깃을 털면 천리에 눈이 날릴” 威風과, “三山이 조그만 흙더미인 듯, 五湖가 조그만 술잔인 듯” 여기고, “위로는 푸르디 푸른 하늘에 닿고, 아래로는 넓디넓은 大地를 덮는” 氣魄, 그리고 “天뜻은 두리워 벌벌 떨고 海若은 놀라 안절부절 못하고, 巨鯨는 머리에 산을 쓴 채 달아나고 큰 고래 바다로 뛰어올랐 다간 치달려 내려가는데, (巨鯨는) 꺾데기 속에 대가리 감추고 (큰 고래는) 볼 수염을 늘어뜨리고 감히 훑쳐보지도 못하는” 神力은 모두 莊子 大鵬形象에는 없던 모습들이다.

즉, 李白은 <大鵬賦>에서 풍부한 想像으로 이 傳說 속의 神鳥를 선명하고도 生動的인 形象으로 그려내었다. 그리고 그는 이 大鵬의 形象에 온 熱情을 傾注하여 自由와 無限을 追求하는 숭고한 理想을 기탁하였던 것이다. 따라서 <大鵬賦> 중의 大鵬은 李白 自身の 化身이니, 時空과 物我를 超越하여 天地萬物을 逍遙하는 莊子의 主體思想이 李白의 自由의 靈魂으로 변한 것이다.

그러나 李白이 비록 莊子의 自由로운 精神世界를 추구하고 있기는 하지만 莊子와는 달리 자신의 理想郷을 現實과 統一시키려고 노력하였다. 이는 곧 個性의 自由와 자신의 理想인 功業의 成就를 統一하는 것이며, 현실생활에서의 自由의 實現을 의미한다.

즉, “富貴, 난 가지려다”³³⁾, “靑雲의 꿈 마땅히 이루리라”³⁴⁾, “하늘이 나라는 재목을 만드셨으니 반드시 쓰임이 있으리라”³⁵⁾고 하여 강렬한 자신감과 아울러 거침없이 자유롭고도 진취적인 氣魄을 드러내주고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李白에게 있어 自由의 概念은 物質과 現實生活을 超越한 幻想이 아니라 出世間的 精神의 自由와 政治理想을 마음껏 펼칠 수 있는 自由, 物質生活 속의 自由를 實現시키는 것을 包括하는 자유이다.

한편, 李白은 또 “蓬萊”의 黃鵠, 蒼梧의 玄鳳, 나무를 물고 바다를 끊임없이 메우는 炎帝의 딸의 火神鳥인 精衛, 술을 마시도록 권해진 鸚鵡, 蟠桃의 天鷄 및 태양 속의 跋鳥들을 大鵬과 비교하고 있는데, 모두 감히 견줄 바가 되지도 못하니, 따라서 울타리 사이에서 노니는 참새나 종달새 같은 무리들에는 더욱더 비길 바가 못된다고 하여 小人과 君子, 간신배와 賢臣이 되고자 한 자신과의 대비를 의식적으로 極大化시키고 있는 것이다.

3. 莊子와 李白의 差別性

33) 李白, <業中贈王大勳入高鳳石門山幽居>: “富貴吾自取”

34) 李白, <冬夜醉宿龍門覺起言志>: “靑雲當自致.”

35) 李白, <將進酒>: “天生我材必有用.”

李白的 大鵬이 비록 그 묘사에 있어 莊子 大鵬의 形象보다 더 장엄하고 웅대한 모습이기는 하지만 그 내면의 모습은 莊子 大鵬보다 크지 못함을 발견할 수 있다.

이는 李白의 俗儒와 庸儒에 대한 태도에 직결된다.

〈嘲魯儒〉

魯나라 늙은이가 五經을 이야기 하는데
 백발로 죽을 때까지 章句에만 빠졌더라.
 經國濟世의 策 물어 보니
 멍하니 안개 속에 빠진 듯 하더라.
 발에는 먼길 가는 나그네의 신발 들메고
 머리에는 方山巾을 썼어라.
 느릿느릿 걸으며 正道를 간다 말하고
 길도 떠나기 전에 먼저부터 일어라.
 원래 秦의 丞相府에서는
 선비들을 소중히 여기지 않았었다.
 자네는 叔孫通을 그르다 하네만
 나와는 애시당초 길이 다르네.
 時事를 그렇게도 모르거든
 汶水 가에 가서 농삿일이나 하시게.

魯叟談五經
 白髮死章句
 問以經濟策
 茫如墜煙霧
 足著遠遊履
 首戴方山巾
 緩步從直道
 未行先起塵
 秦家丞相府
 不重褒衣人
 君非叔孫通
 與我本殊倫
 時事且未達
 歸耕汶水濱.

春秋時代 魯는 孔子의 故鄉으로, 儒家의 傳統이 특히 강하여 實際에 無用한 學者들이 많이 나 왔는데, 李白이 이를 조롱하는 시를 지었던 것이다. 漢高祖가 天下를 統一하고 보니, 功臣들이 라는 것이 모두 무뢰배들이었다. 高祖는 어떻게 해야 조정의 威儀를 세울까 걱정하였다. 그 때 叔孫通이 故鄉인 魯에 가서 儒者 30명을 모아 儀禮를 만들기로 하였다. 그런데 두 사람의 儒者가 부름에 좇지 않고 叔孫通을 비난하니, 叔孫通이 말하기를 “너희들이야 말로 腐儒로다. 時勢의 變化를 모른다”고 하였다. 李白은 이 故事를 들어 형식만을 차리는 儒者를 비난한 것이다.

그는 또 심지어 儒家의 聖王 堯舜에 대해서도 盲目的인 숭배를 하지는 않았다. 즉, “堯舜之事 不足驚, 自餘 嚚嚚直可輕. 巨鰲莫載三山去, 我欲蓬萊頂上行.” 〈懷仙歌〉이라고까지 하였던 것이다.

물론 莊子 역시 “嫺與學鳩笑之曰：我決起而飛槍榆枋，時則不至而控於地而已矣。奚以之九萬里而南爲？… 斥鴳笑之曰彼且奚適也？我騰躍而上，不過數仞而下，翱翔蓬蒿之間，此亦飛之至也，而彼且奚適也？”라 하여 宇宙의 광활함을 모르는 小人의 形象을 보이고 있기는 하지만, 莊子는 大鵬이나 斥鴳을 동등한 입장에 놓고 본 흔적이 역력하다. 그리하여 莊子의 大鵬은 “絕雲氣，負青天”하기만 할 뿐이며, 이러한 大鵬의 形象과 “騰躍而上，不過數仞而下，翱翔蓬蒿之間”의 斥鴳과의 對比를 통해 “크기는 비록 다르지만 逍遙함은 하나이다.”³⁶⁾라는 哲學命題를 강조하였던 것이다.

36) 郭象注：“小大雖殊，逍遙一也”

이는 작고 큼에 대한 言說에 불과할 뿐이다. 저 天地의 바름을 타고 六氣의 辯을 부리며 無窮한 世界를 노니는 존재는 장차 무엇을 의지할 것이겠는가? 그러므로 至人은 자기가 없고 神人은 功이 없으며 聖人은 이름이 없다.

此小大之辯也。…若夫乘天地之正而御六氣之辯，以遊無窮者，彼且惡乎待哉？故曰至人無己，神人無功，聖人無名。³⁷⁾

여기서 말한 至人·神人·聖人은 바로 絕對的인 幸福을 달성한 사람이다. 그는 세상일의 잡다한 구분을 초월했을 뿐만 아니라 자기와 世界, 나와 내가 아닌 것의 구분도 초월하였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행복하다. 또 그는 道와 合一되었기 때문에 자기가 없다(無己). '道'는 '아무 것도 하지 않으면서도 하지 못하는 일이 없다'(無爲而無不爲)'. 즉 道는 아무 것도 하지 않기 때문에 또한 공적이 없고, 聖人은 道와 合一되었기 때문에 역시 공적이 없는(無功) 것이다. 聖人은 天下를 다스릴 수도 있다. 그러나 그의 다스림은 百姓을 그대로 있게 두고 자기의 타고난 능력을 충분하고도 자유롭게 발휘할 수 있도록 한다. 道는 이름이 없기 때문에 道와 하나가 된 聖人도 이름이 없게 되는 것이다(無名).³⁸⁾

"翱翔天地"의 大鵬이나, "畢志榆松"하는 斥鷃이나 모두 "物任其性，事稱其能，各當其分"하기만 하면, 至人·神人·聖人이 되어 "逍遙"의 境界를 노닐 수 있게 된다. 그리하여 大鵬은 비록 크지만 "無以自貴於小鳥"며, 斥鷃은 비록 작지만 "無羨於天地"하니, "어찌 그 사이에서 시비를 가리겠는가?"³⁹⁾ 따라서 莊子의 입장에서 大鵬과 斥鷃의 形象은 대립적인 관계에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泰山"과 "秋毫"와 같이 모두 "爲一"한 것이다.

또 莊子는 스스로를 大鵬에 비교하지 않고 大鵬과 斥鷃이라는 두 극단적인 존재를 들어 "만물은 모두 하나"⁴⁰⁾라는 관점을 서술했다.

그러나 李白은 哲學家의 冷靜한 視角 대신 詩人으로서의 熱情的인 情感과 濃厚한 個人主觀主義色彩를 가지고, 申管晏之談，謀帝王之術，備其智能，原爲輔弼，使實區大定，海縣清一"⁴¹⁾하고 자 하는 李白 自身の 雄志를 大鵬의 이미지로 形象化하였던 것이다. 따라서 <大鵬賦>에는 <莊子·逍遙遊>의 "小大一也"의 사상이 없다.

III. 結 論

<莊子·逍遙遊>의 大鵬은 大小의 區別을 떠난 哲學的인 이미지이지만 李白의 大鵬은 斥鷃을 경멸하고 심지어는 黃鶴·玄鳳·精衛·鷓鴣·天鷄·峻鳥 등과 같이 범상치 않은 새들조차도 비할 바가 못된다고 하여 大鵬의 形象을 극대화하여, 分辨 意識이 지극히도 선명한 文學的인 이미지가

37) <莊子·逍遙遊>

38) 馮友蘭 <中國哲學史>, 정인재 譯, 螢雪出版社, 1991, p. 149.

39) 郭象注: "豈容勝負於其間哉?"

40) <莊子·德充符>: "萬物皆一"

41) 李白, <代壽山答孟少府移文書>

다. 물론 元의 祝堯는 “이는 莊子の 寓言을 드러낸 것인데, 본래 광활한 意境에서 나온 것이기는 하지만 太白은 또 그것을 豪氣와 웅장한 문장으로 더욱 發하였으니, 事件과 言辭가 서로 조화를 이루고 俊逸하고 장대하며 飄逸하여 離騷에 제법 가깝다.”(此顯出莊子寓言, 本自宏闊, 太白又以豪氣雄文發之·事與辭稱, 俊逸飄逸, 去騷頗近.)⁴²⁾라고는 하고 있으나 그 意象의 境界는 확실히 莊子에 비할 바가 못됨을 알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哲學的인 깊이와는 상관없이 그 文學的인 이미지는 그의 뛰어난 才能과 탁월한 낭만적 상상으로 形象性이 탁월하고, 또한 양자의 분별성을 분명하게 드러내고 있다는 점에서 특징이 있다. 이는 결국, 莊子가 세상을 회롱하고 人生을 유희하며 소극적으로 遇跡한 반면, 李白은 “安社稷”, “濟蒼生”을 자신의 理想으로 삼아 積極的으로 處世한 浪漫詩人이라는 점에서 기인한다 하겠다.

〈臨路歌〉(一名 臨終歌)

천치 진동하며 큰 봉새 날았다가
 힘겨워 날개죽지 중천에 꺾었던만
 그 바람에 온 세상 격동시키며
 해뜨는 부상에서 큰 소매 해를 덮 듯
 후세 사람 이를 전하겠지만
 공자님 안 계시니 뉘라 눈물 흘리리?

大鵬飛兮振八裔,
 中天摧兮力不濟.
 餘風激兮萬世,
 游扶桑兮掛左扶
 後人得之傳此
 仲尼亡兮誰爲出涕.

그러나 李白은 封建社會의 속박된 思想을 싫어했고, 자유스러운 思想으로 雄志나 奇才를 펴고자 하였으나 如意치 않았다.

그러므로 豪放한 氣勢로 大鵬을 形象化시켜 자신에 비유하였으니, 莊子의 自由自在의 出世思想과 屈原의 훌륭한 入世思想이 混在·融合되어 李白의 精神을 大鵬으로 形象化하였던 것이다. 그리고 李白의 그러한 雄志는 이 詩에서도 보이듯이 臨終할 때까지도 꺼질 줄 몰랐다.

그러므로 〈大鵬賦〉는 李白의 思想性向을 가장 잘 突出시킨 작품이라 하겠으며, 青年時期부터 형성된 基本的인 思想性格인 것이다. 그리고 그 形成은 蜀에서의 수많은 書籍을 涉獵하였던 것에서 胚胎되었고, 道教와 道家思想에게서도 至大한 影響을 받았다고 하겠다.

莊子는 廣漠한 天宇 중의 大鵬을 無條件的으로 無制限的인 神鳥로 創造하였지만 李白은 자신이 蓄積한 思想과 融和시켜 形而上下로 再創造하여 汎俗하지 않게 大衆化 시켰다.

42) 王琦 《李太白全集》再引用.

Summary

A Study of Li Bai's *Da Peng Fu*

Kwak, Ih-Boo

Li Bai (701-762) is one of the greatest romantic poets since Qu Yuna. Le Bai produced his poems by the way of creating the conflict between reality and ideal, the spirit of insurbodination, the strong emotion, and the broad-minded characters. Li Bai's poems are belivered to be similar to the Tian Bao period he lived, considering his works are sublime, dauntless, unrestrained and pathetic.

His romantic tendency helps his poems realize the high ideal from the point of the content of the work, whereas it helps them reveal the exaggerated metaphor from the point of art. For instance, in *Da Peng Fu*, Li Bai compared himself to Da peng. Also, he described Da Peng as a great spirit. As Le Bai liked the idealized Da Peng many times in his poems. One of the most important poems and fu is *Da Peng Fu*. Le Bai cherished Totem about Da Peng to the last.

This paper studies the world of himself and the world of art, with the emphasis on *Da Peng Fu*, comparing *Da Peng Fu* to other works, discussing the thoughtful side and the art side. And then this paper tells Le Bai to a broadminded romantic poet. While Zhung wrote Da Peng metaphysically, Le Bai wrote it for popularity. Both Le Bai a romantic poet and Do Fu a realistic poet are compared as the greatest poets in Chinese history.